

영남문화재연구원
제28회 조사연구회 개최

「**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

(재)영남문화재연구원은 『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라는 주제로 제28회 조사연구회를 8월 22일 토요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연구회는 대구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청동기시대의 유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취락과 사회를 조명하였습니다.

1부는 ▲류지환 영주시청 학예사가 ‘취락과 무덤군의 상관관계로 본 청동기시대 대구 월배지역 취락의 전개과정’을 시작으로 ▲유병록 우리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이석범 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청동기시대 대구 금호강 이북지역의 주거와 취락’ ▲황창한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석기를 통해 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김광명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거석기념물과 무덤’ 등 5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는 김권구 계명대학교 교수 주관으로 주제발표자와 박영구(강릉원주대 학예사), 김병섭(극동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배진성(부산대학교 교수), 윤호필(중부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금번의 조사연구회는 대구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의 많은 연구자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발표·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논문은 ‘영남문화재연구 28’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